



웨살리에있는아소까 돌기둥과아소까탑.

정치인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자비로운 피아다시 왕(아소까 왕)은 왕위에 오르지 8 년만에 깔링가를 정복하였다. 15만 명이 포로로 끌려오고, 10만 명이 살상되었고, 그리고 그 몇 배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다. 그 후 깔링가는 합병되었다.'

깔링가를 정복한 후에 자비로운 왕은 매우 열성적으로 담마에 몰두하게 되었고, 담마를 열망하였고, 사람들에게 담마를 가르쳤다. 지금 자비로운 왕은 깔링가를 정복한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을 느끼고 있다. 독립된 나라를 정복하였을 때 사람들의 살육과 죽음, 그리고 포로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자비로운 왕에게 슬픔을 주고 한탄하게 한다. 참으로 자비로운 왕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질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부드럽게 대하기를 열망한다. 자비로운 왕은 담마에 의한 정복(담마비자야)을 가장 훌륭한 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담마정복은 다음 목적으로 새겨졌다. 나의 아들, 손자, 증손자들이 새로운 정복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마에 의한 정복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아소까 대왕의 바위적령 13)

돌기둥에 새긴 담마비자야

아소까 대왕(기원전304-233)은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됐던 인도대륙을 정복해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고 확립시킨 인도사의 위대한 통일군주이다. 아소까는 지금도 10억 인도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이상군주·이상정치가로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부처님께 귀의했던 아소까 대왕에게 끊임없는 정복전쟁은 크나큰 고통이었고 한탄이었다. 바위적령(窟崖勅令) 13에 기록된 '깔링가 전쟁' (기원전 262년)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깔링가(Kalinga)는 지금 인도 동남부 오랏사 지방이다. 이 전쟁에서 15만 명이 포로가 되고 10만 명이 살해됐고, 그 몇 배의 민중들이 전쟁 때문에 죽어갔다. 이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아소까는 오열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

람들의 슬픈 얼굴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맹세했다. 폭력을 포기했다. 자자손손 영구히 폭력을 포기했다. 폭력전쟁을 포기하고 담마비자야(Dhammavijaya), 곧 담마에 의한 정복-담마에 의한 정치로 전환했다.

담마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정법(正法)·정의(正義)로 일컬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담마비자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정의로운 정치이고, 그 핵심은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는 비폭력 정치를 의미한다. 아소까 대왕은 이것을 위해 스스로 열성적으로 불교에 몰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열망해 대륙 전역에 8만 개의 불탑을 세워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고 전법사들을 파송하며 불교 승단을 정착하고 교리를 확립하며 경전을 결집했다.

1950년대 우리는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을 저질렀다. 수십만 군인들이 살육당하고 포로가 되고 수백만 동포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갔다. 전쟁의 폭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미망인·이산가족·장애자가 돼 아직도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소까는 나오지 않았다. 아소까 대왕 같이 폭력을 영구히 포기하고 정의로서 다스리기를 맹세하는 위대한 정치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이 군비강화에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북은 주민들의 생존을 희생하며 대량살상이 가능한 무서운 핵무기를 개발해 위협하고, 남은 미국의 핵우산을 불붙고 경제력을 배경으로 최첨단무기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10년 가까이 겨우 겨우 추구했던 협력과 공존정책은 폐기되고 다시 대결과 폭력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폭력대결의 구도 속에서 천안함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대한민국은 그대 영웅들을 영구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화려한 수사가 그들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상할 수 있을까? 자식 잃고 남편 잃은 그들 가족들의 통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폭력대결 구도 속에서 언제 다시 우리 젊은이들이 죽을 수명으로 빨려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불교가 할 일

이제 바야흐로 우리 불교가 나서야 한다. 우리 불교가 나서서 정치인들을 일깨워야 한다. 그들을 찾아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며 정의를 외쳐야 한다.

'그대 정치인들이여, 대통령이여, 장관들 국회의원들이여, 장군들이여, 저 아소까 대왕을 보시오. 저 아소까 대왕을 보고 배우시오. 아소까의 눈물을 보고 탄식을 듣고 고통을 느껴보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조건 폭력을 포기하십시오. 폭력 대결구도를 포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긍심 위에 확고히 서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협력과 공존정책으로 나아가시오. 금강산 개성 문을 다시 열고 백두산도 가고 함자공당도 짓고 올림픽도 같이 나가고 - 남북 정치인들이 모여 정상회담 국회회담도 열고 군비축소회담도 열고 평화회담도 열 준비를 하시오. 무엇보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 어린 이들 살릴 양식과 의약품을 공급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안보이고 이것이 최선의 국방일 것이요. 그대 정치인들이여, 비폭력만이 유일한 평화정책이란 사실 명심하십시오. 분노는 분노를 낳고 폭력은 또 새로운 폭력을 불러온다는 붓다의 담마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소까가 눈물로 바위에 새긴 정치인의 길이란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오.'

이 땅의 정치인들이 불교를 알고 아소까를 알았다면, 이 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김재영
청보리회 지도부

우리가 만나는 붓다

부처님은 진정 오시는가

2010년 4월은 춥고 습했다. 이상한파가 지속되어 봄꽃들이 더디게 얼굴을 내밀었다. 중순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한 빛나무가 많았다.

서해의 연평도 앞바다에서는 천안함 사고로 46명의 장병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들을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한 중사와 구조를 돕던 어민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은 더했다. 아직은 회고조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현재진행형의 슬픔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모두의 가슴 속에서 쉽사리 잊히지 않을 아픔이다.

TV 앞에 앉아 처참하게 동강난 협체의 인양작업을 지켜본다. 비뚤함에 몸을 뒤 틀며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모습에 눈물짓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고의 원인은 규명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책임공방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싸움과 음모론으로 번질되고 있다.

연일 계속해서 들려오던 비보에 지쳐 채널을 돌린다. 환경 파괴와 세금 낭비를 우려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시민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정치논쟁화 되어간다. 북한군 전체의 항공운항에 차질을 입힌 아이슬란드의 화산재와 세계 곳곳의 지진들, 그 외에도 슬픈 사건과 사고들의 소식이 마음을 불안하고 어지럽게 한다.

다시 채널을 돌려본다. 이 와중에도 우스꽝스런 모습의 코미디언들이 관객을 희롱하고 시트콤 드라마의 청중들이 박장대소한다. 홀소핑 채널에선 질 좋고 값싼 내의와 특등급 한우 소고기를 판매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패션모델들이 런웨이를 걷는다. 최신 건강 상식을 전하는 의사와 교리를 설파하는 종교인도 보인다.

둘러도 둘러도 끝이 없다. 눈앞에서 빙글빙글 화면이 돌고 세상이 돈다. 네모난 상자 안, 영상과 소리가 되어 방영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낯 놓고 바라본다. 우리 삶을 중계하는 TV속 세상은 마치 요지경속 같다.

기쁨과 슬픔, 노여움과 즐거움, 병듦과 늙음, 태어남과 죽음이 한데 뒤섞여 굴러가고 있는 세상의 역설이 이곳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저것이 혹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는 화면 속 허상들의 모습 위에 부처님의 얼굴이 겹친다. 아름다운 석굴암 부처님의 얼굴이다. 어떤 시절, 경주 수학여행에서 본 그 얼굴이다.

그러나 그 얼굴 또한 허상일 뿐 진짜 부처의 얼굴은 아닐 것이다. 다만, 먼 과거의 인구가 영원히 가닿을 수 없는 이상향을 한없이 실상해 가깝게 정성스레 쫓고 다듬은 경이로운 허상일 것이다.

오랫동안 방 한켠에 놓아둔 석고 불상을 곁에 가지고 온다.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을 기리기 위해 수학여행 기념으로 사온 싸구려 불상이다. 석굴암 부처님을 모방해 만든 작고 조잡한 것이다.

허상인 인간은 허상을 사랑한다. 허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허상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허상 때문에 웃고 눈물도 흘린다.

지난 4월에도 고통 받는 허상들이 우릴 슬프게 했다. 영정 속, 죽은 아들의 얼굴을 어투만지는 어느 어머니처럼 모조 불상의 얼굴을 매만져본다. 길게 감은 눈과 반듯하게 내려진 코, 다문 입과 큰 귀. 가부좌를 틀고 고요히 앉은 그는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다.

이제 그만 TV를 끄고 싶다. 그러나 TV를 끄지 않는다. 끄려다가 그만둔다.

대신 글처럼 어두워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본다. 숨을 가다듬고 입은 가만히 다룬다. 귀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 아무 것도 듣고 있지 않다.

TV의 브라운관을 통과한 세상이 빛과 소리가 되어 어두운 방안에 앉은 내 위에서 명멸하고 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다. 슬픈 일이 많았다. 우리들 마음에 실상로의 부처님이 오시길 바란다.



이상경
사나리오 작가

2554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세상



태극기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계사 주지 홍명 토 진
상임고문 덕암 구자선 합장
신도회장 대각심 이연숙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인터넷 검색엔진

조계사 검색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내 연등으로 태극기를 형상화 하였습니다. 이번 태극기는 2009년 5월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당시 추정 태극기로서 4대 중 감과 리의 지리가 요즘 사용하는 태극기와는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등 하나하나가 모여 밝힌 태극기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합니다.